

섬진강권 지자체, 내달 국회서 ‘섬진강 선언’

〈영호남 11개 시·군〉

발전마스터플랜·환경청 신설 담겨... 동서통합 촉매제 주목

섬진강을 낀 영·호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음 달 섬진강 환경문제 해결과 발전의지를 담은 ‘섬진강 선언’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섬진강 선언은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가 지역에 필요한 SOC 확충보다는 예산이 적게 드는 문화·스포츠 행사 위주로 추진돼 전시행정이라는 지적(광주일보 8일자 1·3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실질적인 동서통합을 이끌 촉매제가 될 지 주목된다.

섬진강권 11개 지자체 협의체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정현태 남해군수)는 지난 9일 경남 남해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섬진강 선언 발표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다음 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양·순천·구례·곡성·남원·진안·장수·임실·순창·남해·하동 등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소속 11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섬진강 선언에는 국가 주도의 섬진강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수계관리기금 독립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섬진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섬진

강 광역발전축 구축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하동군 섬진강호텔에서 관련 전문가와 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섬진강 선언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국회에서 섬진강 선언을 하면 섬진강 환경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함께 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섬진강을 살리는 역사의 과

제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1997년 12월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생태보전 등을 위해 섬진강을 낀 11개 영·호남 지자체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섬진강담관관리단, 익산국도관리청 등 6개 특별기관이 참여해 구성됐다.

한편 9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북유럽 물관리 정책연수,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업 변경, 특별회원 기관과의 우호·협력사업 발굴, 섬진강에서 발생한 남해안 부유성 해양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알래스카 날으는 공군 F-15K편대

오는 12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되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 시작을 앞두고 적용 훈련을 실시 중인 공군 F-15K 편대가 알래스카 헤이즈(Hayes)산 상공을 비행하며 조종석에서 태극기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주영순 “정부, 미술품 40% 분실·훼손”



정부가 사들인 미술품 10개 가운데 4개는 분실, 훼손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제대로 보 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미술품 268점 중 61.9%인 1280점에 대해서만 제대로 문화부로 관리가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부 보유 미술품의 효과적 파악을 위해 문화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40%에 가까운 788점(38.1%)에 대해서는 분실, 훼손되거나 작가와 작품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문화부로 관리가 이전되지 못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미술품 관리가 너무나 부실했다”면서 “미술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와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백군기 “인터넷 정당가입 쉽게” 법개정 추진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11일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 절차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입당 또는 탈당을 하려면 방문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방문 공인인증서는 유료 발급으로 사용자가 적어 인터넷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이 어려운 편이었다.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입당 또는 탈당 시 방문 공인인증서 외에도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 절차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 절반 “약간 희생 있더라도 개성공단 유지해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대북정책 만족” 52.3%

국민의 절반은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8일 공개한 ‘2013년 통일외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설문조사에 찬성한 사람은 조사 대상의 50.4%에 달했다.

작년에는 같은 설문조사에 찬성한 비율이 45.7%에 그쳤다.

이번 통일외교조사는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달 1~19일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의 표본오차는 ±2.8%이며 신뢰수준은 95%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조사 대상의 52.3%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의 34.3%보

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라고 답한 사람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한 개방 및 인권신장’(25.2%),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17.4%), ‘평화협정 체결’(17.2%),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13.6%) 순이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설문조사에 찬성한 사람은 52.3%로, 반대한 사람(19.8%)보다 월등히 많았다.

올해 초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강화됐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40.4%로, 작년의 50.5%보다 줄어든 반면,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16.4%로 작년(10.9%)보다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에 찬성한 비율은 54.0%로, 작년의 59.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8.9%로 작년(51.6%)보다 줄었다.

/연합뉴스

“정부, 수명대회 지원율”

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역장애인단체연합회와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19 세계수명선수권대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보증서 위조사건 때문에 예산 등의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우리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재정난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수명선수권대회에는 세계 202개국에서 2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회 개최를 계기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 생활체육 기반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유엔사, 北에 훈련일정 통보

개성공단 회담 영향 촉각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더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중 하나인 UFG 연습은 한반도 안 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위한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000여명을 포함해 예인과 비수한 수준인 3만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군단, 합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한다.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이 훈련을 참관한다.

특히 올해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이 참관할 계획이라고 연합사는 설명했다.

연합사는 이날 오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방어적 목적의 훈련 성격 등을 북측에 통보했다.

유엔사는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핸드마이크로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유엔사와의 직통전화로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매년 관영 매체 등을 통해 UFG 연습 실시를 비난해왔다.

정부와 군 당국은 UFG 연습이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게 될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총창로 5가 버스도로 대지 77㎡(235)공시지가 17억7천천 대도 9억5천
- 계림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 (164)건평 396㎡(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과 유흥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 (124)건평 327㎡ (99) 공시지가 2억 8200 대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 (97)건평 1235㎡ (363) 건물 2층 공시지가 14억 5천 대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원룸,투룸,대지 508㎡ (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소방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 (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가에 대도 11억 6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대도 13억
- 신창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옥,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대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의가능 대도 7억4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6천 대도 2억 3천
- 목포대학 부근 생활주택 84개 허가지역 땅 372평 은행 2억8천 대도5억5천
- 함평군 해보면 영업장되는 여관과 접해있~2층 주거지 504평 504평에는 아파트, 생활주택 적합 투지에 최고 대출 4억 대도 10억5천
- 광주와 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점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부 대출 10억 대도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외권선설립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동구 총창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 광산구 온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15억 최저가3억5천만
-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16억9천만 최저가14억8천만

단독주택

-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9천만
-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감정가1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용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기업, 정래예식장, 투자족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시옥)

- 치명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시옥,전시장)

- 생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125억 (시옥,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

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

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